

무능한 목사의 몸부림

김은성(거제섬김의교회 담임목사)



올해로 25년째 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다. 부교역자로 11년, 담임목사로 13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있다. 신학 공부할 때 ‘목회는 종합예술’이라는 말을 들곤 했는데 실제로 목회현장을 접해보니 그것은 사실이였다. 별의별 사람, 별의별 문제를 다 겪고 있으며 그 사람과 상황에 따라 목회자로서 온갖 반응을 나타내고 보여야 실제로 목회가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간절히 의지하게 된다.

내게도 월요병이 있다. 월요일만 되면 ‘다가오는 주일에는 뭘 설교하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요즘 설교 못해서 쫓겨난 목사는 없다’는 말을 선배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설교에 자신이 없다. 너무 어렵고 힘들다. 설교가 좀 잘 되었다고 느끼는 날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지만, 설교가 잘 안되었다고 느끼는 날에는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었다. 설교가 잘되었고 못 되었고는 진짜 설교자 본인의 착각이라는 것을 나중에 서야 알게 되었지만, 이런 무능한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도 참 대단한 분이시다.

‘내용만 좋으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본문 관찰과 해석, 그리고 적용까지 원고 작성에 주력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교인들은 원고를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있었다. 어떻게 전달하는가도 중

요했다.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즐지 않게 하는 것부터 급선무였고, 듣기는 들어도 소위 은혜가 안되면 그것도 큰일이었다. 요즘 강단에서 개그맨 흉내 내는 설교자들이 많아졌다. 그게 잘못된 태도임은 알지만, 그게 설교자의 타락임은 분명하지만, 나는 그 분들의 마음 밑바닥은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는가.

기도를 간절히 하니 교인들이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 기도 없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설교였다. 청중이 사람인 이상 설교 전달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듣게 하시는 분은 역시 성령님이셨다. 그런데 설교준비에 매달리는 시간만큼 기도에 넉넉하게 시간을 내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이게 문제다. 아무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보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려는 나 자신과 힘겹게 싸우고 있다. 가끔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 나를 보면서 쓴웃음을 짓기도 한다.

부교역자 기간 중 많은 날들 동안 대학부와 청년부를 맡았기 때문에 소위 학적인(?) 강의를 자주 흉내 내곤 했다. 그러다가 담임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 교양 있는 척 하던 내가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작정기도, 금식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심지어 추운 겨울날 스티로폼 방석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 한 달간 철야기도를 한 적도 있었다. 하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었고 목회현장의 문제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겠지만.

교인들이 늘어나자 당연한 문제는 리더십이었다. 목사들이 자주 힘들어하고 갈등을 빚는 그 뿌리에는 목회자의 인격과 성품, 상처,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가 얽혀 있다. 완벽한 리더십은 없다. 그러나 어설픈 리더십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 어떤 분은 나보고 '천명 넘는 교회는 저절로 굴러간다고 위로해(?) 주었지만 이 땅에 저절로 굴러가는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조금만 방심해도 안되는 곳이 교회다. 나는 성경 인물 중에 모세에게 이끌린다.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에서 많은 무리를 이끌던 모세를 생각하며 눈물 글썽인 적도 있다.

리더십을 말할 때 한 가지 역설적인 부분이 있었다. 내가 교회에 손을 대면 델수록 교회는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결국 리더십은 교회를 주무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며, 교인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섬길 때 주어지는 것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지 나는 요즘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게 리더십의 근본이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리더십은 언제나 필요하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요즘도 설교와 기도, 리더십으로 무장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기 위해서 2가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선 ‘자기침체’에 빠지지 않으려 하고, 또 하나는 ‘자기개발’에 힘쓰려 한다. 사실 조금 오래 달리니까 피곤하다. 언젠가 한 번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3일간 실컷 잠이나 잤으면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가나안농군학교 갔을 때 ‘돌멩이도 누워있는 놈은 다 일으켜 세워 놓았다’는 교장선생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목회자의 적이다. 그렇지만 지혜 없는 열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담임목사가 되면 책을 많이 읽고 싶었다. 기독교강요, 신학적인 이슈가 되는 학술지와 신학 잡지, 기독교 고전, 그리고 유명한 저술가들의 책들, 참 많이 자주 읽고 싶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 ‘그림의 떡’이었다. 솔직히 우리나라 목회현장은 너무 바쁘다. 이유 있게 바쁘기도 하고 쓸데없이 바쁘기도 하다. 나이 50이 되니 시력도 예전만큼 못하다. 이러다가 결국 ‘머리가 텅 빈’ 목사가 되는 게 아닌가 두렵기도 하다. 업무도 많고, 기도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거기다 내 게으름까지 겹쳐서 나는 오늘도 고민하며 몸부림친다.

목회현장에는 즐거움과 아픔, 웃음과 눈물, 치유와 상처가 있다. 마음고생도 몸고생도 많이 한다. 그러나 세상에 이 정도 고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요즘 생각하면 목회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드릴 뿐이다. 나는 자격 없음도 알고 내 부끄러운 과거도 안다. 그러나 전지(全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 사용하시니 이게 놀랍고 감격스러울 뿐이다. 내가 목회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였다. 늘 만나 뵈었고, 또 계속 만나 뵈게 될 것이다.

요즘 은퇴목사님들이 너무 부럽다. 끝까지 충성되게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끔 목회가 힘들 때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가합창곡 ‘본향을 향하네’(김두완 곡)를 조용히 불러보며 마음을 추스른다. 이 세상의 영욕(榮辱)과 사람들의 평가는 다 지나가는 것이며, 결국 나는 주님 앞에 서야 되며, 지금 나는 한 사람의 순례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3일 전에 78세 되신 부친께서 핸드폰 문자를 보내오셨다. “은성아, 거제도 처음 내려갈 때 그때 초심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 잘해라.” 그렇다. 힘내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